

“불교는 개혁의 종교”

계간 '불교평론' 통권50호 기념 전권특집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다시 배로 늘린다 해도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물질적 소유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불교는 무엇보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재상이 온통 물질주의로 치달을 때 정신주의의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 현실은 요원하지만 하다.

범어사에서 시작된 돈봉투 파문은 최근에는 범주사까지 번졌다. 한 후보자 스님은 다른 후보자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는 중앙총회 소유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3월 총회에 안건 상정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계간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은 통권 50호를 기념해 ‘한국불교 개혁을 꿈꾸다’를 주제로 전권 특집호를 펴냈다.

홍사성 주간은 권두언에서 “불교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 추진된 개혁의 사명을 역사사회 안에서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불교는 개혁의 종교였고, 개혁의 종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의 총론 ‘한국불교, 어떻게 개혁을 지향해 왔나’를 시작으로 경허 용성 박한영 만해 성철 이기영 광덕

휴암 등 근현대 선지식의 삶과 사상을 통해 개혁을 진단했다. 또, 정화운 동 비상종단 개혁회의 종단정체성 등 별도의 주제를 통해 한국불교를 입체적으로 조망·진단했다.

차차석 교수는 한국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라는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용성·만해 등이 부르짖은 자주 자강 자립의 실현 ▷사찰제

경허 선사부터 휴암 스님까지

18편 논문 통해 한국불교 진단

조계종 교단정체성 등 재조명

이론·대안 정리, 이제는 실천

정의 투명성 제고 ▷도제양성 ▷불교 정체성을 담보한 종헌종법 제정 ▷확고한 불교적 신념의 전파 ▷종단 통계의 현실화 ▷산중불교, 제의불교 타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차장은 “불교 중흥 제일 과제는 교단의 청정성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교단정화운동을 통해 불교의 정치성이 확립됐다. 그러나 교단정화 운동서 세속 권력 개입을 조래한 것은 한계”라며 “교단 사부대중 공동체 의식과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최근 진행 중인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이 교단정화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박부영 불교신문 전략기획실장은 비상종단(1983~1984)이 전면적 개혁을 시도 했으나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재형 범보신문 기자는 “개혁회의(1994)를 불교교단의 치부를 드러낸 자정운동이었다”라며 “세간의 민주화·자주화 이념을 초월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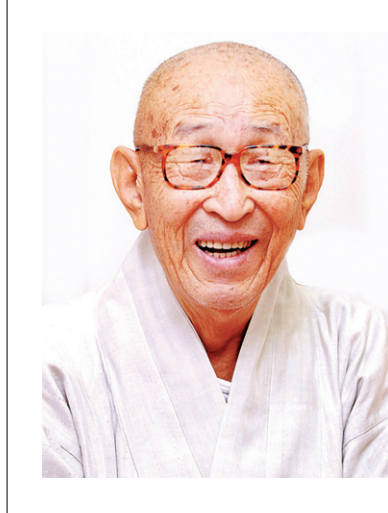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조계종의 종단 정체성은 정통과 전통을 아우르는데 있다”고 말했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정법이 아닌 모든 것은 정법으로 회귀시켜야 한다. 불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거기에 불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이 최근 진행중인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은 불교 생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개혁에 다름 아니다.

책에서 필자들은 표현은 달랐지만 현재의 불교계가 변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번 <불교평론>의 진단으로 근·현대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대안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집대성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관련기사 7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고불총림 방장 수산지종대종사 원적

법랍 73세·세수 91세, 11일 백양사에서 원로회의장 염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대종사가 3월 7일 오전 8시 44분 원적했다. 법랍 73세. 세남 91세. 대종사는 “구십년 삶이 이 허공 꽃과 같은지라/ 오늘 환을 여의고 본가로 돌아가노라/ 꽃잎 떨어져 흩날리며 까치 소리하는 가운데 /

하하 웃고 한번 뒤집으니 공겁 밖 이로다(九十年生是空花 今日離幻歸本家 落花翩翩鶴鳴中 呵呵一翻空劫外)”라는 입중계를 남겼다. 대종사는 1922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삼년상을 모두 마친 19세(1940

년)에 백양사를 찾았다. 이듬해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되어 부전을 살며 강원을 이수하고, 194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종사는 “가진 것이 있으면 공부 가 되지 않는다”며 평생 은행통장을 가지지 않았다.

수산지종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1일 오전 11시 백양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염수됐다.

관련기사 3면·차주상보

조동섭 기자



유물로 성철 스님 만나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8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개최했다. 조계종 출범 50주년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전시에는 스님의 유품과 유필 등 50여 점과 영상물 등이 전시 상영된다. 개막식에서 20여 년간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백련불교재단 이사장) 스님이 스님의 유품 중 누더기 두루마기를 관람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전시는 6월 3일까지 열린다. **박재완 기자**

국민70%, 종교인 정치참여 반대

종자연, 정교분리 시민의식 연구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2월 27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결과, 이 같은 통계를 얻었다고 3월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2만해축전심포지엄 ‘정치와 종교, 댐 수 없는가?’ 기초자료로 활용기 위해 더 플랜(대표 박병석)에서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7.2%가 ‘찬성’했다. 이 가운데 ‘전적으로 찬성’ 45.7%+ ‘대체로 찬성’ 21.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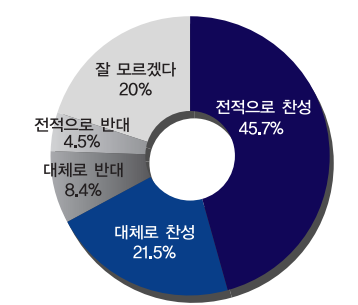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67.1%가 ‘대체로 반대’ 27.9%가 ‘전적으로 반대’ 39.2%가 반대했다.

종교행사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바람직함’이 30.9%였다. 과반 이상인 52.9%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택했다.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64.9%는 ‘찬성’했다.

정치인들이 종교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46.2%, ‘잘 모르겠다’ 15%로 응답했다.

정교분리 원칙 (2012.2.28 조사결과)



종자연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정교분리원칙이 준수되길 원하는 시민이 다수이다. 특히, 최근 종교인으로서 정치참여를 선언하거나, 종교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사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종자연 박광서 소장은 “종교인이 종교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심포지엄에서는 장대의 서울대 교수가 ‘정교유착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허진민 변호사가 ‘사랑의교회 신축과정의 문제점과 정교분리원칙’을,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국가조찬기도회의 헌법적 문제’를 주제발표 했다.

장대의 교수는 “생존 자체가 목표였던 시절, 한국 개신교가 선택한 가치는 성장주의였다. 이과정에서 개신교의 뿌리 깊은 배타주의가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조찬기도회로 상징되는 정교유착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교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교유착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관련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법·국민 무시해서야”

국가조찬기도회 중단 촉구

“국가 미래 농단하는 국가조찬기도회 중단하라.”

3월 8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소장 박광서)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9일 성명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무릎기도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번 기도회에서 대통령은 성경에 가슴을 품고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교세를 확장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월주 스님 등 7인 만해대상 선정

만해대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지구촌공생의 월주 스님 등 7인을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평화 운동가 아키 라(39)와 함께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천부문에 천주교 前 안동교구장 르네 뒤퐁(83), 인도 우타라칸드 주정부 불교장관 오타니 문수 고신(32),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커트 그리블(48)이, 문예부문에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70), 김재홍(65) 문학평론가가 각 부문에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8월 만해축전 기간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4면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879호 CONTENTS

종합 수산 지종 대종사 원적 문화재청 5년단 3조8천억 투입

시방세계 성철 스님 특별전



신춘기회 종합대학을 가다

문화 대담·불교와 죽음과 문학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택불교
031)792-6288 / 794-4055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

眞際 法遠 大宗師 추대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 추대식을
봉행하오니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6(2012)년 3월 28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13대 종정 추대식 봉행위원장 **자 승**

